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김 헌 선*

<차례>

1. <칠성본풀이> 연구의 문제 제기
2. <칠성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신화적 특색
3. <칠성본풀이>와 <월정본향본풀이>의 비교
4. <칠성본풀이> 연구의 의의와 변이유형의 칠성신앙적 의의
5. 마무리

<국문요약>

이 글은 제주도 12본풀이로 취급되는 <칠성본풀이>를 연구한 결과이다. 이 본풀이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 본풀이는 제주도 밖의 외래신이 제주도에 이동해 와서 제주도 토착민에게 신앙적으로 숭앙받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신앙 구전의 역사이기도 하고 신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이므로 신화이기도 하다. 제주도 일반본풀이 가운데 신앙좌정경위담을 담고 있는 것으로 <칠성본풀이>는 주목받아 마땅하다.

칠성신은 제주도에 있는 신앙으로 이른 바 부군칠성신앙으로 알려져 있다. 안칠성은 고팡이라는 가옥의 특수한 곳에 모셔지고 밧칠성은 울담 밑의 주저리에다 모신다. 이들은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부를 가져다 주는 신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신은 모두 외지에서 유래되었으며 곳곳의 제주도 토착신이자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당신과 마찰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함덕 근경에서부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게 된다. 송대장 집을 거쳐

*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 제주도의 도성 안에 본격적인 신앙처를 상징하고 관에서 모셔지면서 제주도의 일반적인 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칠성신의 내력을 밝힌 본풀이는 제주도의 본향당신을 모시는 당신본풀이의 구조와 일치하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일치하는 것은 <월정본향본풀이>이다. 두 가지 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1. 고귀한 신분의 여성이 집안에 혼자 남게 되다
2. 여성이 특정한 계기로 구렁이가 되다.
3. 여성의 부친이 무쇄석함에 여성을 넣어 바다에 버리다
4. 무쇄석함 열어서 탈이 나다
5. 영감이 무쇄석함 열어서 탈이 나다.
6. 무쇄석함의 여성을 잘 위해서 탈을 면하다
7. 여성이 좌정처를 옮기다. (신의 노정기 제사)

고귀한 혈통을 가진 여성이 변신해서 버림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신으로 대접받는 것은 전형적인 여성영웅서사시의 흔적을 간직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영웅담으로 짜여진 것은 이 본풀이가 부신인 칠성으로 대접받는 사정이나 마을의 여성신으로 대접받는 과정을 다시금 파악하는 중요한 것이다. 부신은 주로 여성들의 소관사이고 여성들의 신앙적 핵심에 해당하므로 이를 여성영웅을 내세워서 다룰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월정본향본풀이>도 이러한 마을신앙의 결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육지나 제주도에도 <칠성본풀이>가 있어서 상호 비교가 요청된다. 두 가지 본풀이를 비교해서 보면 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두 가지 <칠성본풀이>는 합쳐 놓으면 온전한 사건이 구성되고 칠성신앙의 두 가지 유형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이 드러난다. 천상의 칠성신앙과 지상의 칠성신앙이 구체적으로 결합되어서 천상의 칠성에 힘입어서 지상에 태어난 여성이 사신 칠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건의 요체가 된다. 칠성이 외면적 유사성 때문에 결합된 것인지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복합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천상의 칠성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칠성본풀이>는 천상에서 지상으

로 지상에서 해상으로 해상에서 지상으로 부상하는 전 과정을 모두 담고 있으나 지상의 칠성신앙을 드러내는 <칠성본풀이>는 지상에서 해상으로 해상에서 지상으로 옮겨가는 수평적 세계관에 입각한 제주도 본풀이의 전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두 가지는 서사 전개상 흡사하게 맞추어져 있으나 사실은 칠성신앙의 전반적 전개에 맞추어진 느낌이 든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된다. <문전본풀이>의 결말 부분과 <칠성본풀이>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천상의 칠성신앙을 보여주는 서두 부분이 일치하는 일이 벌어진다. <칠성본풀이>와 <문전본풀이>가 어찌 다 보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문전본풀이>는 본토에서는 <칠성풀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전본풀이>와 <칠성본풀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까워졌으리라고 이해된다.

주제어 : 칠성본풀이, 월정분향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신앙, 토착신, 외래신

1. <칠성본풀이> 연구의 문제 제기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신인 칠성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본풀이이다. 연향상고판에 있는 안칠성과 우영 밑 주절이로 덮혀 있는 밧칠성의 내력을 섬기는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본토에서 섬기는 엽가리 신앙의 제주도적 변이형으로 판단된다. 칠성신은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나뉘고, 안칠성은 어머니로 장설룡 따님애기이고, 밧칠성은 일곱째 따님애기이다. 칠성신은 각도 비념인 칠성새남 또는 전새남에서 섬기는 신이다. 칠성신은 뱀신이고 신체는 집안의 안팎에 흩어져 있으며 신의 직능은 칠성신을 모심으로 해서 집안의 부유함이 깃들도록 하는데 있다.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장설룡 따님애기가 중과 관계한 뒤

에 사람이 뱀이 되었다고 하는 신화적 발상에 있다. 대체로 신화에서는 구렁이나 뱀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 설정인데 <칠성본풀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뒤바뀌어 있다.¹⁾

제주도 신화에서 사람이 구렁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요소인가 아닌 가 하는 문제는 긴요한 검증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당신본풀이가운데 사람이 구렁이가 되는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칠성본풀이>는 흔히 제주도의 12본풀이로 분류되나 이 본풀이에는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명이 불가피하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적 구조의 일부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주인공들과 판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도 좌정처를 정하지 못하고 본향당신과 대결한 뒤에 함덕에 좌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신본풀이와의 연관성 속에서 <칠성본풀이>구조를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칠성본풀이>의 좌정처가 요긴한 해명사항이다. 최초의 좌정처인 함덕을 버리고 칠성골로 옮기고, 다시금 제주도 도성안의 거주처로 옮기는 과정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이주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의 좌정담이며 신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신의 노정기이다. 최초에는 다른 지역의 당신 텃세에 짓눌려 좌정처를 정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단골의 규모나 지체가 점차로 상승한다. 일곱장수와 송침주, 송대장 배부른 동산의 관원 등의 단골 변화는 <칠성본풀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로 자리잡았는가 알게 해주는 요소이다.

위에서 예시한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칠성본풀이>가 신화적 발상에 있어서 매우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고

1)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신화적 설정에서 매우 긴요하다. <구렁덩덩신선비>와 <칠성본풀이>는 신화적 사고의 두 가지 형태를 대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구렁덩덩신선비>에서 구렁이가 선비가 되는 것이고, <칠성본풀이>에서는 사람이 구렁이 또는 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칠성본풀이>가 보기 드문 신화적 상징을 담고 있다 하겠다. <칠성본풀이>가 당신본풀이적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본풀이의 일정한 간섭 아래 형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칠성본풀이>가 신을 숭앙하는 집단인 단골을 확장하다가 마지막으로 도성 안에 자리 잡은 것은 떠돌이로 떠돌다가 마침내 온전한 신격으로 자리잡았다고 하는 뜻을 갖는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신화의 발상, 형성, 정착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신화이다.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발상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전승되는 유사한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이러한 신화적 발상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칠성본풀이>는 다른 당신본풀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곧 <월정본향본풀이>이다. 구체적으로 <월정본향본풀이>와 어떻게 같고 다른가 비교하면서 수태 과정에서 흡사한 <제석본풀이>의 성격과 견줄 필요가 있다.

<칠성본풀이>의 형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당신본풀이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가 검증해야 한다. 특히 특정한 장소에 태어난 주인공이 부모에게 버림받고서 바닷물에 버려졌다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신과 대결하고 좌정처를 정하고 단골을 확보하는 것은 당신본풀이의 전형적 서사구조와 일치한다. 무쇠석함에 담겨서 돌아다니는 신의 여행인 노정기와 다른 신들의 대결담은 아주 흥미로운 특색을 갖는다. 깃가로 돌아다니면서 겪는 신과의 갈등이 있고 중산간지대를 다니면서 겪는 당신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칠성본풀이>의 신의 노정기를 이해하는 요긴한 면모이다.²⁾

2)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의 김만보 심방과 양창보 심방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들이다. 김만보 심방은 2002년 5월 28일에 제공한 <제주각서본향>에 정리된 사실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창보 심방은 2003년 1월 22일 자택에서 있었던 대담에서 제주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계보를 직접 구송한데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창보 심방은 젊어서 직접 당신과 본향당을 답사하면서 사실을 확인한 점이 구체적으로 신화의 당신지리지로 구체화되었다.

<칠성본풀이>는 단골 관계에 의해서 신의 지위와 판도를 확장한 특별한 본풀이이다. 단골의 변화에 따라서 신의 직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단골들이 부자가 되거나 신성성을 부정하던 단골들이 신의 정체를 부정하다가 신에게 벌을 받아서 전새남을 하고서 그 벌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것이 <칠성본풀이>의 신화 의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풀이와 전새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본풀이의 주인공이 겪는 고난을 단골들이 동참하면서 신화의 적극적 확립과 의례의 확립이 함수 관계를 지녀서 <칠성본풀이>에서는 구비전승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칠성본풀이>는 다른 본풀이와 다르게 신화적 발상, 신화적인 형성과정, 신화의 의례적 정착 과정 등이 뚜렷하게 요약되어 있는 특별한 본풀이라고 이해된다. 본풀이의 속성상 <칠성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로 분류될 성 있으나 <칠성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적 속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흥미로운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 가운데 일상적이고 관념적인 분류를 넘어서는 본풀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칠성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토착적 갈래 구분 상 그것을 넘어서는 본풀이로 <칠성본풀이>를 꼽을 수 있다.

<칠성본풀이>가 다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속성은 <칠성본풀이>의 소종래를 해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라고 짐작된다. 이 본풀이는 제주도의 전통적 가옥 구조 속에서 생성되었는 바, 이것이 과연 전통적인 것인지 외지에서 들어간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사실은 <칠성본풀이>의 전반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칠성은 육지에서는 터주나 엽을 상징한다. 터주나 엽에는 반드시 구렁이신을 모시도록 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칠성은 엽신의 변화체라고 할 수 있다. 엽은 엽왕 또는 엽대감이라고 하는데 엽가리의 신체에 구렁이 또는 족제비 등을 모시는 것으로 나타난다.³⁾ 칠성이 엽에서 비롯되었으며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칠성본풀이>가 이러한 각도에서 변형되고 정

착되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업이나 업가리에서 핵심이 되는 동물은 곧 구렁이이다. 구렁이는 꿈에 나타나서도 재물을 가져다준다는 집안의 재복이나 안영을 관장하는 신격이다. <칠성본풀이>는 사람이 구렁이 꿈을 꾸는 것인지 구렁이가 사람 꿈을 꾸는 것인지 알쏭달쏭한 본풀이이다.

2. <칠성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신화적 특색

<칠성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 안사인이 구연한 각편을 중심으로 서사단락을 정리하기로 한다.⁴⁾

- (1) 칠성본풀이 들어가는 말미가 있다
- (2) 칠성님 난산국은 강남목골 미양산 고장남밭 질친남밭서 솟아났던 일곱칠성이다.
- (3) 옛날옛적 장나라 정설룡과 송나라 송설룡이 부부간으로 살아올 때 천하 거부로 살지만 오십 원이 근당해도 자식이 없어서 근심을 한다.
- (4) 장설룡 대감님은 송나지 구만장 가사지 구만장 상백미 일천석 중백미 일천석 하백미 일천석 ‘백근건량 준준이 채워서’ 동개남 상저절에 원불수륙을 들어서 여자식이 탄생하였다.

3) 업신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명자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 『한국민속학보』 7(한국민속학회 1996). 가신신앙과 무속신앙의 상관성에 관한 입체적 논의가 요구된다. 연구자에 따라서 동일한 신앙 대상이 별도로 논의되는 잘못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칠성본풀이>는 그에 적절한 사례이다.

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419~431면. 지금까지 채록된 <칠성본풀이>는 별도의 연구 대상으로 하고, 핵심적 대목에서 필요하다면 비교하기로 한다. 가급적이면 서사단락을 요약할 때에 제주도 본풀이의 말을 살려서 사용하기로 한다.

- (5) 아기씨가 일곱 살이 나던 해에 아버님은 천하공사 살레가고 어머니는 지하공스 살러 가고자 할 때에 아기씨를 데리고 갈 수 없었다.
- (6) 마흔 여덟 고무 살장 안에 무어놓고 느진덕이정하님과 약조해서 공사 살고 와서 노비 문서를 돌려주기로 하고 살고 있으라고 한다.
- (7) 느진덕 정하님은 궁기로 밥을 주고 옷을 주면서 칠일 일뵈를 지나가니 궁기로 옷을 주멍 ‘간간무레 뵈웁니다.’
- (8) 느진덕 정하님은 연 사흘 순력 돌며 찾아도 아기씨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주인 내외에게 서신을 띄운다.
- (9) 장설룡 아기씨는 ‘새각단 밧디’와 ‘묵은 각단밧디’에서 밤을 새우고 죽을 사경을 당하게 된다.
- (10) 동으로 오는 삼베 중에게 살려 달라고 하자, 중이 눈도 거들떠 보지 않고 지나간다.
- (11) ‘식번차’ 오는 대사에게 아기씨가 자신을 살려 달라고 하자 대사가 장나라 장설룡의 딸인 것을 말하자 우리 법당에 와서 원불수륙을 들어서 낳은 아기씨라고 말하고 아기씨를 형겅에 쌓아서 장나라로 내려간다.
- (12) 장나라 장설룡 내외가 아무리 딸 애기씨의 행방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대사가 아기씨를 오장삼에 쌓아서 장설룡 대감님 먼문 말판돌 아래에 다 파 묻어 두고 먼 문안으로 들어서면서 소송문안이라고 한다.
- (13) 장설룡 대감은 소사 중에게 아기씨의 행방을 찾으라고 하자 손가락을 굽히면서 단수육갑을 짚고서 ‘말판돌’이래나 파보라고 말한다.
- (14) 장설룡 대감이 이 말을 듣고 성식을 내면서 ‘제화가 이중제화’라고 하면서 소사중을 내쫓게 되자 대사님은 천리길과 만리길을 뛰면서 ‘부술’을 쓰면서 멀리 달아난다.
- (15) 장설룡 대감이 말판돌 아래를 파서 보니 아기씨가 옷장삼에 쌓여 있어서 파헤쳐 놓고 보니 아기씨 얼굴에 검은 지미가 있고 아기씨 몸천은 ‘아리롱 다리롱 헉’고, 아기씨 배는 ‘두롱베’가 되었다.
- (16) 대감은 양반의 집에 사당공사가 났다고 하면서 아기씨를 죽이자고 해도

한이 없고 ‘무쇠설갑’에 체와 놓고 ‘동이와당’에 띄어간다.

- (17) ‘든물에도 흥당 난물에도 흥당’ 강남목골서 제주 ‘물모루’를 근당하니
- (17-1) 도성삼문 일스당 산짓개로 들고자 하난 산지 용궁칠머리 세벤도원수
썰여지고
- (17-2) 화북으로 들자터니 가릿당이 썰여지고
- (17-3) 가물개(삼양)동 들자터니 숨부기 남알 개로육서 썰여지고
- (17-4) 설개(삼양)동 들자터니 숨부기 남알 개로육서 썰여지고
- (17-5) 신촌으로 들자터니 큰물머리 썰여지고
- (17-6) 조천으로 들자터니 셋콧알 고망할망 썰여지고
- (17-7) 신흥으로 들자터니 볼레낭알 박씨할망 썰여지고
- (17-8) 함덕으로 들자터니 스투물거리 썰여지고
- (17-9) 북촌으로 들자터니 해신국이 썰여지고
- (17-10) 동북으로 들자터니 고침지 영감 썰여지고
- (17-11) 짐녕으로 들자터니 안성세기 밧성세기 썰여져 못내들고
- (17-12) 서화리로 들자터니 천즈 백주 금상이 썰여져 못내들고
- (17-13) 든물 썬난으로 들저하여 서이와당 들어간다.
- (18) 함덕을 근당하니 서모오름 팽풍여 알 썬은 개로 올라간다.
- (19) 그때에 함덕 옛게 열세 가호 일곱 잠수가 사는데 하루 아침에 작은 테왁
작은 물 망시리, 아끈 비창을 거느리고 서모 오름 팽풍여 썬은 개로 들고
자 하난 난데없는 무쇠설갑이 있어서 일곱잠수가 자기가 먼저 ‘봉갔다’고
머리콧이 잡으며 싸우게 된다.
- (20) 함덕 송침주 영감이 송동바구리 둘러 매여서 서모 오름 알 팽풍여를 들
어서서 사람소리가 왁자지껄하니 싸우고 있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일곱
등분 하고, 무쇠설갑은 영감 자신이 담배갑으로 가지겠다고 중재한다
- (21) 송침주 영감이 무쇠설갑을 세 번치니 설강 열어진다.
- (22) 무쇠설갑에는 세는 뿔롱, 눈은 뿔롱, 아리롱 다리롱 일곱아기 단마실충
청구렁이 흑구렁이인 듯 무쇠설갑 안에 소랑소랑 앉아 있으므로 누추하고

재수없는 것이라고 해서 송청주 영감과 일곱 잠수가 동서데레 케우린다.

- (23) 그날부터 송침주와 일곱잠수는 눈에 ‘청걸리’ 가슴엔 ‘선끄틀래기’ 등을 일러주고 죽을 사경을 당하게 된다.
- (24) 하도 답답해서 가물개 살던 이원신에게 문복을 하니까 남의 나라에서 온 임신을 박대한 제목으로 ‘전새남’을 해야 한다고 한다.
- (25) 일곱 잠수 송침주 영감이 전새남을 해서 칠성새남을 하니까 신병이 좋아 지고 먹을년 입을년 나주와서 천하거부로 잘 살게 된다.
- (26) 일곱 잠수와 송침주 영감이 서모오름 앞에 칠성당을 무어놓고 위하여 가 니까 탄 사람들도 나도 같이 하자고 해서 함덕 밑은 부촌이 되어간다.
- (27) 일곱칠성이 여기에서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도성 안으로 찾으러 가기로 한다.
- (28) 일곱칠성아기를 두고 낮은 대로 길 밤은 소로길로 도성 안으로 가게 된다.
- (28-1) 함덕 금성동산 영끼 몸끼 불려두고
- (28-2) 조천 만세동산 영끼 몸끼 불려두고
- (28-3) 신촌 열녀문꺼리 영끼 몸끼 불려두고
- (28-4) 질다 진드르 영끼 몸끼 불려두고
- (28-5) 화북 별도 쌀쓴꺼리 영끼 몸끼 불려두고
- (28-6) 베린내를 근당하니 벤질벤질허여시난 일곱아기들이 묵은 옷을 벗어 가시당에 번어두고 묵은 몸 벗고 새옷 입어서 베릿물로 갔다고 해서 베릿 내라고 이름 짓는다.
- (28-7) 일곱아기가 ‘ㄱ으니므를’에 당도해서 송사 생각이 없어서 그때부터 송사 생각이 없어진 곳을 ‘ㄱ으니므를’이라고 한다.
- (29) 고우니므를 이름 지워두고 도성안 들어서서 가락콧머리를 들어서니까 물 질 내려가는 궁기가 있으니까 칠성굴로 들어가서 송대장칩 먼문 앞에 누웠으니까 송대장부인이 자신에게 태운 조상이라고 해서 집으로 가자고 한다.

- (30) 송대장 치매각에 싸여 ‘벤도중’이도 알게 천하거부로 되어서 잘 살게 된다.
- (31) 칠성님이 제일 먼저 와서 칠성골에 좌정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칠성골로 짓게 된다.
- (32) 하루날은 일곱아기가 배 부른 동산에 소랑소랑 누웠더니 관원행차가 눈에 펜식한다고 해서 ‘누추하고 추잡한 것’ 죄인이라고 침을 뱉었다.
- (33) 그날부터 관원행차 입에 구감 열두 풍문을 불러줘서 아는 신녀 불러서 문복하니까 ‘웨국임신’을 눈에 펜식해서 속절지 췌목 때문이라고 하면서 전새남을 하라고 한다.
- (34) 칠성새남을 해서 일곱칠성이 많이 배가 불러서 ‘등지딱 배지딱 배 부른 동산’으로 이름 삼짜 짓는다.
- (35) 어명이 칠성애기에게 갈 들로 차지할 들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 (36) 어명이 일곱딸애기에게 각자의 좌정처를 확약 받는다.
 - (36-1) 큰딸애기는 추숫못에 추수할망으로 들어선다.
 - (36-2) 셋딸애기는 이방성방 방으로 들어선다.
 - (36-3) 셋째딸애기는 옥차지도 내차지라고 하며 들어선다
 - (36-4) 넷째딸은 동과원도 내차지 서과원도 내차지 과원할망으로 들어선다
 - (36-5) 다섯째아기는 동창고차지 서창고 차지로 창퀴지기로 들어선다
 - (36-6) 여섯째아기는 광청못의 광청할망으로 들어선다.
 - (36-7) 일곱째아기는 단정굴 신정굴 알로 청주쟁이 흑주쟁이 청지에 흑지에 알로 들어서서 역대부군칠성이 되어서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달래주겠다고 한다.
- (37) 어머니는 연양상고광으로 대독 아래서 소독 알로 검은독 노린독 알로 대두지 소두지 알로 섬지기 말지기 뉘지기 흡지기 마련해서 열두 시만국을 걸워서 안칠성으로 들어서겠다고 한다.)

5) 서사단락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 제주도 본풀이는 단형서사시가 아니고 장형서사시이기 때문에 미세화소 단락 차원의 상

서사단락을 요약해 보면 <칠성본풀이>가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본풀이를 거칠게 집약해 놓은 느낌을 외관상 배제할 수 없다. 본풀이 전체를 이것저것 짜집기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모가 그러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서사단락의 번호와 본풀이의 유사한 대목을 병기하면서 <칠성본풀이>가 어떠한 경로로 짜집기 했는가 그러한 특성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다.

- (2): <퀘네깃당본풀이> 등의 당신본풀이
 (3)~(8): <초공본풀이>
 (9)~(11): <초공본풀이>
 (16)~(18): <퀘네깃당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19)~(26): <월정당본풀이>, <토산알당본풀이>,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32)~(34): <광정당본풀이> 등의 당신본풀이

<칠성본풀이>가 서사 내용의 전개상 여러 가지 본풀이 내용과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칠성본풀이>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 다른 본풀이에 의해서 일정한 간접작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2)는 칠성의 근본 출생지가 어디인가 밝히는 데 있다. <퀘네깃당본풀이>나 여러 당신본풀이에서 강남에서 솟아난 신이 제주도에 왔다고 하는 설정은 보편적 서사문법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강남목골 미양산 고장남밭 질친 남밭’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발상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3)에서 (11)까지는 일반신본풀이 가운데 <초공본풀이>와 비교된다. 주

세한 서사단락 요약이 필요하다. 또한 본고의 논의가 유형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상화에 의한 유형구조의 논의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각도에서 <칠성본풀이>에 관한 상세한 서사단락 요약을 했으며 미세화소를 집약해서 재론할 때에는 사정을 다시 밝히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인공의 출생과정과 결연 과정이 <초공본풀이>와 흡사해서 함께 견줄 필요가 있다. 주인공의 출생과정에서 동개남 은증절에 원불수륙을 들어서 자기멧왕 아기씨가 탄생하는 이야기와 장설룡 대감이 동일한 방식으로 원불수륙을 들어서 아기씨를 얻는 과정이 일치한다.⁶⁾ 단순한 구비공식구나 주제의 일치를 넘어서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여주인공의 탄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결연과정의 일치는 <칠성본풀이>와 <초공본풀이>의 근원적 일치점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9)에서 (11)까지의 단락은 중과 아기씨의 결연이 핵심 내용이다. 황금산 추젓선생과 노가단 풍애기씨의 결연이 중과 아기씨의 결합을 드러내는 것이고, 장설룡 대감 아기씨와 세번째 중의 대사가 결합하는 것은 근본적 일치점을 가진 것이다. 중과 아기씨의 결합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사실도 숨길 수 없는 일치점이라고 하겠다.

차이점이 있다면 <초공본풀이>에서는 아기씨의 부모가 없는 틈에 와서 고무살장 안에 숨겨진 아기씨를 찾아서 잉태시키는 것에 비해서 <칠성본풀이>에서는 아기씨가 고무살장에서 나와 ‘묵은 각단 밧’에서 중을 만나서 잉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게다가 아기씨가 자발적으로 구원해 주기는 원하는 것으로 추저대선성이 스스로 찾아와서 강제로 잉태시키는 행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의 출생, 결연, 잉태 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칠성본풀이>의 소종래가 제주도 고유의 속성보다는 외래적 속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칠성님의 난산곡이 ‘강남목골’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

6) (가) 동일한 심방의 구연본에 의한 일치, (나) 본풀이적 상황의 일치, (다) 우연의 일치 등이 그것이다. (가)일 개연성이 있으니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자료의 경우에 이와 같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나)와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일반신본풀이에서 장면의 일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다)와 같은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가 개인의 전승 속에서, 그리고 (나)집단의 전승 속에서 이러한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가 칠성님의 근거지가 제주도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후반부에서 칠성님이 ‘남의 나라에서 온 임신’이라고 하거나 ‘웨국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칠성신의 소종래가 제주도가 아님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칠성본풀이>가 <초공본풀이>와 흡사하다는 사실은 이 신의 내력이 <제석본풀이>계통의 신화적 구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입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석본풀이>에는 고유의 여성신격과 외래의 남성신격이 결합해서 새로운 신격을 탄생시키는 핵심적 서사 기능이 있는데 <제석본풀이>의 제주도적 변형이 곧 <초공본풀이>이다. 제주도 <초공본풀이>에서 무조신화적 면모를 탈색시켜서 <제석본풀이>적 구성과 일치시킨 것은 변형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짐작하도록 한다.⁷⁾ <칠성본풀이>는 서두와 앞대목에서 <제석본풀이>적 구조를 배면에다 두고 원용하고 있다.

(16)~(18)까지는 여성주인공이 잉태한 채로 부모에게 쫓겨나는 대목인데, 이러한 내용은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적 속성을 고스란히 전승하고 있는 요소이다. <초공본풀이>에서 잉태한 이유 때문에 암소를 데리고 쫓겨나는 신화적 요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정한 주인공이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신화소는 세계적으로 흔한데, 특히 무죄석함에 담겨져 버려지는 것은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요소이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으나 배면에 잠재적으로 전승되는 요소이므로 긴장감 있는 전통을 계승한 요소이다.

7) <초공본풀이>가 무조신화인가 아니면 생산신의 신화인가 하는 문제는 커다란 논쟁거리이다. <초공본풀이>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삼맹두의 무조기원담이 우세해서 제주도의 무조신화적 속성이 더욱 강하다. 생산신의 신화로 보자면 <제석본풀이>와의 연계담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각도에서 해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김현선 「제주도<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세계의 영웅신화』(동방미디어, 2002), 253~331면,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6(한국구비문학회, 2003.6).

아기씨를 주기지 혼(恨)이 었어지고 무쇠설갑 채와놓고 동이와당 떠와간다
든물에도 흥당 난물에도 흥당 강남목골서 제주 물리루(水平縑)을 근당 近
當)하니⁸⁾

본래 있었던 곳에서 뿌리가 뽑혀서 바닷물로 버려지는 것은 고대의 신화와 서사시에서 발견되는 전통적 서사문법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가깝게는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시공간적으로 확장해서 보면 고대신화의 주인공인 석탈해(昔脫解)에서도 나타나는 요소이고 주인공이 궤(櫃) 속에서 태어나는 설정도 이에 근거한 발상이다. 멀리 지역적으로 Egypt 신화나 『성경』의 Moses 이야기에서도 궤 속에 담겨진 주인공의 추방여행담에서도 발견된다.

제주도의 <궤뒤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터전을 잃고 부모에 의해서 버려지는데 흔히 무쇠설갑에 넣어져 버리는 설정이 나타난다. 여섯 짝 아들이 무쇠석함에 담겨져 버려지거나 동해 용궁 따님애기가 동해용궁에서 버려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요소이다. 제주도의 신화적 환경에 맞게끔 자신의 모태에서 버려진 존재가 바닷물을 통해서 삶의 좌정처를 정해 나가는 면모는 제주도 본풀이적 속성이 우세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칠성님의 난산국이 강남이라는 설정과 바닷물에 버려진 속성이 호응한다.

(19)에서 (26)까지는 당신본풀이적 속성에서 나타나는 요소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신이 본향당을 좌정처로 정하고 단골들 정하는 것과 일치한다. 단골들이 새롭게 나타난 정체불명의 본향당신이나 도는 ‘웨국임신’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다가 본향당신의 영검이나 ‘부술’에 놀라서 그를 온전히 대접하는 것과 같은 요소이다. 본향당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당신본풀이에서 나

8) 현용준, 같은 책 422~423 면

타난다.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더럽고 추악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러한 요소는 당신본풀이의 기본적 발상과 일치하며, 넓게는 일반신본풀이에서도 발견된다. 이와는 다르게 신성한 존재를 신성한 존재로 쉽사리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칠성본풀이>에서는 단골의 상반된 태도가 두 가지 다 보이게 된다. 본향당신에 대한 두 가지 면모가 본향당신과 단골의 관계 정립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칠성본풀이>에 작용한 일정한 간섭을 뜻한다고 하겠다.

당신본풀이적 서사영향이나 작용 가운데 다른 하나는 사람과 구렁이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동물은 신화적 사고에서는 오고 가면서 둔갑하기 일췌이다. 사람이 구렁이에서 왔다는 설정도 있고, 구렁이가 사람에서 왔다는 설정도 있으므로 주목된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이러한 설정 가운데 후자 쪽이 우세하게 발견된다. 사람이 구렁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제주도 본풀이의 속성이라 하겠다.

제주도의 세 가지 본풀이를 주목하기로 한다. <월정향당본풀이>, <토산알당본풀이>,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등이 그것이다. 세 가지 본풀이에서 사람이 구렁이로 변모하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월정본향당본풀이>에서는 여성이 구렁이 또는 뱀으로 직접 둔갑하고, 뱀이 다시금 여인으로 환생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 <토산알당본풀이>에서도 청구렁이가 바둑돌로 다시금 여신으로 변화하는 것이 나타나고,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에서도 여성이 구렁이로 화해서 배의 밑창을 가려서 백성을 구한다는 내용이 개입되어 있다.

사람과 구렁이 또는 뱀으로 분간되지 않고 연결된다는 신화적 사고는 <칠성본풀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될 것 같으나 사실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면모라고 할 수 있겠다. 구렁이와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되며 사람이나 마을에 일정한 질서를 부과하고 자신의 질서대로 이끌고 가는 것은 <칠성본풀이>의 신화적 신

성성을 갖는 요소이다.

신화의 주인공이 신성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신과 신을 섬기는 단골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성성의 발로인 의례를 거행하는 방법이다. 신화와 의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신화는 의례 확립의 핵심적 구비문서이고 의례는 신앙심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위의 규범이 된다. <칠성본풀이>와 <칠성새남> 또는 <칠성본풀이>와 <전새남>의 상관성은 이러한 각도에서 마련된다. 칠성신이 상자에서 나와서 지속적으로 신성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신성성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구실을 하는 인물은 곧 사제자인 이원신 무녀이다. 무녀는 신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전새남의 의례를 제안한다.

칠성신이 (19)~(26)의 단락에서 하는 것은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기 위해서 신화의 본향당신과 투쟁하여 나가는 방식이다. 앞에서 (17) 단락과 (18) 단락에서 신화적 지리지인 본향당신의 거주처가 등장하는데 칠성신과의 갈등이 등장한다.⁹⁾ 자신의 신성한 거주처를 정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신의 노정기는 (19) 단락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28) 단락에서 자신의 신성성을 증명해 가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32)에서 (34)까지는 단신과 관원행차 사이에 발생한 신성성의 문제가 당신본풀이의 설정과 일치한다는 내용이다. 관원의 권위에 입각해서 본향당신의 정체를 부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관원 행차에 대해서 말광돌 아래를 그냥 지나간 대가로 말의 발굽을 절게 하거나 일정한 질병을 주어서 그 병을 해소하는 일이 발생한다. <칠성본풀이>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전새남의 제의적 기원과 ‘베부른 동산’의 지명연기전설이 합쳐져서 신의 신성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칠성본풀이>에서 여러 가지 본풀이적 요소가 다양하게 발견되는 것

9)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재론할 예정이다. 칠성신의 노정기는 각편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으니 제주도의 전역을 돌아다니는 본향당신의 노정기가 아주 긴 요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어떠한 각도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칠성본풀이>의 속성이 불완전하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칠성본풀이>가 다른 본풀이와 겹쳐져 있으므로 본풀이적 고유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본풀이의 속성에 일정한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칠성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적 속성을 가진 것이라면 두 가지 속성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 첫째는 일반신본풀이는 소재적 공통점을 육지의 본풀이나 설화에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¹⁰⁾ 제주도의 전승 본풀이는 원천 자체가 외래적인 거소가 공유하는 본풀이와 제주도의 고유한 요소가 점철된 본풀이로 양분된다. 일반신본풀이는 대체로 몇 가지 본풀이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와 본토의 본풀이가 소재나 내용에서 일치점을 갖는다. <지장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본풀이는 내용이나 소재에 있어서 본토의 설화와 본풀이와 일치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둘째는 일반신본풀이는 천지현상과 인문현상이 일정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이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와 차이나게 하는 점이다. 그런데 <칠성본풀이>의 경우에는 인문현상에 관련된 성격이지만, 칠성신의 행적은 조상신이나 당신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신본풀이의 성격과 일치하고 일반적인 천문현상이나 인문현상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문현상과 관련되나 사실은 당신본풀이적 속성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가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칠성본풀이>생성에 일정한 의문이 해명된 셈이다. <칠성본풀이>는 독자적으로 생성되

10) 제주도 일반신본풀이가 모두 12가지로 분류되는데 내용은 대체로 본토의 본풀이와 일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12본풀이의 자료 정리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거한다.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열두 본풀이자료집』(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지 않고 다른 것과의 상관성 속에서 생성되었다. 업신앙이 가옥구조 속에 자리 잡으면서 안칠성과 밧칠성이 신격으로 모셔지게 됨에 따라서 <칠성본풀이>가 생성되고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칠성본풀이>가 외지에서 들어온 신격으로 묘사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칠성본풀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면모라고 생각된다.

안칠성은 흔히 연향상고팡 또는 궤팡에 모셔지는 것으로 곡물을 모시는 곳이다. 밧칠성은 논밭이나 뒤뜰에 있는 우영의 담 있는 곳에다 모시는 신이다. 안칠성과 밧칠성은 각편에 따라서 다르게 장소를 잡기도 하나 대체로 신격의 특성은 안칠성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밧칠성은 가변적이다.¹¹⁾ 제주도의 가옥구조나 집의 특색과 결합되어 있는 듯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근거는 터줏가리나 업가리와 관계 있으며, 신이 칠성신으로 된 것으로 보아서 업가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업신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의적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구렁이나 족제비가 관련된다.

<칠성본풀이>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도록 한다. <칠성본풀이>에서 신화적 발상에서 독자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신화적 발상을 정리하며 이렇다.

(가) 사람은 사람이다.

(나) 구렁이는 구렁이다.

(다) 사람은 구렁이이고, 구렁이는 사람이다.

11) 대체로 말쑤딸아기와 어머니인 장설룡따님아기의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가 핵심이다. “날라그네 뱃것들로 나가근 과원을 츠지했다근 열매에는 구시월 불긋불긋 노릿노릿해영/ 우리나라 진상하다 남은 걸랑 ㄹ는대 칠구덕에 어머님 나시자시게 어께집 지어아정 가쿠다. ... 뱃것들로 가민 감낭 알로나 배낭 알로나 유즈낭 알로나/ 어느청글낭 알로나 영해여도 청너울랑 청주쟁이 백너울랑 백주쟁이 흐여그네/ 우으랑 뿌라지곡 아래랑 퍼지게 타부록하게 강 누워그네 기왓장 흐나 암지왜 수치 왜 노양”이라고 되어 있다.(문무병, 같은 책 349~350 면)

(가)와 (나)도 신화적 사고의 모태가 되기는 하지만 (가)와 (나)는 경험론적 추론에서만 가능한 관계이다. 신화적 사고에서 (가)와 (나)의 축도 소중한 구실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다른 한 축을 잃어버리고 만다. (가)와 (나)가 별도의 것이어서 대립적으로 작용하기만 한다 (가)와 (나)가 서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인지하고 상징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다)에서는 경험을 넘어서는 일종의 신화학적 가정에 의한 전체를 인정하는 선형적 추론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따름이다.

(다)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상징적 차원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는 가신신앙의 차원에서 사람과 구렁이가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이다. 업에 대한 꿈은 다소 비의적인 상태의 것이어서 겉으로 말하지 않고 꿈을 꾸 사람 혼자 간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가)와 (나)의 상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다) 차원의 진전에 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일정한 서사적 인과 관계는 갖지만 일회적이고 상징적인 꿈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다)의 가상차원을 신화와 의례 속에 구체화하면서 지속적인 반복과 재현이 가능한 서사적 인과 관계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구비전승의 신화이다. 신화에서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렁이에서 사람이 비롯되었다고 하는 설정과 사람이 구렁이가 되었다는 설정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신화적 유형이다. 제주도 본풀이 가운데 사람이 구렁이가 되었다고 하는 설정은 우세하게 나타난다.

꿈과 신화는 가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사고의 다른 형태임을 명심해야 마땅하다. 꿈은 일회적이고 개인적 체험을 전체로 하는 가상의 상태에서 마련되는 것이라면 신화는 항구적이고 집단적 체험을 전체로 하는 가상의 상태에서 마련된 것이다. 신화에 대한 의례적 공식화의 요청은 집단의 체험을 항구적으로 재현하자는 것이고 꿈을 비의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생각은 개인의 체험을 항구적으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꿈과 신화는 항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뒤섞이기도 한다. 구렁이가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구렁이의 꿈을 꾸는 것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같은 방식의 설정을 사람과 자연계의 관계로 환치해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된다. 사람이 해나 달이 될 수 있는가, 꽃이나 나무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러한 신화적 사고는 지속적으로 연속적 세계관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적 신성체험이나 집단적 신성체험이 사실은 동일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고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잠재적 전승의 결과물이고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의해서 지속적으로 탐구되던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꿈과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구렁이와 사람은 적대적이지 않고 호혜균등한 조화에 근거한다. 구렁이를 사람이 섬김으로써 구렁이의 신성한 주력에 의해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사람은 구렁이에게 전새남의 곳으로 답례한다. <구렁덩딩신선비>에서도 구렁이 선비의 혼적인 구렁이 허물을 잘 보관하라고 함으로써 구렁이와 사람의 지속적 유대와 의의를 간직하고 있다. 구렁이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칠성본풀이>에서 일곱칠성이 배릿내물에 가서 허물을 벗어서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렁이가 사람과 관련되는 신화적 사고는 제주도의 다른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두 가지 본풀이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데 <월정본향당본풀이>와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가 그것이다. <월정본향당본풀이>에서는 황대감을 따라 나선 아기씨가 목은 각단밭에서 갑자기 구렁이가 되었다고 해서 <칠성본풀이>보다 훨씬 심한 비약을 설정했다. <칠성본풀이>에서는 단계적 고양이와 비약의 단계가 있는데 <월정본향본풀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비약이 있다.

게다가 <월정본향본풀이>에서는 아기씨 → 구렁이의 변신을 했던 여성이 다시금 호사스럽게 차린 여성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는 기이한 변화로 나타난다.¹²⁾ 아기씨 → 구렁이 → 새삼스러운 아기씨 등의

변화에 의해서 사냥바치로 있는 ‘신사국’이라는 남성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구실을 한다. 변화무쌍한 비약을 해서 본향본풀이의 서사적 전재를 좀 체로 납득하기 어렵게 했다.

구렁이가 사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고의 핵심은 초월적 능력에 있다. 신화적 사고의 핵심에서 구렁이가 되는 진기한 체험은 평범한 인간과 다르게 놀라운 능력을 갖추는데 있는데 그것은 마술 또는 부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존재로서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직접 관련됨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성한 존재에게 부당한 예우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응징을 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온전한 예우를 하면 신의 선물은 재복이 승양하는 집단에게 열리게 된다. 사제자 또는 무당이 이에 대한 중재자 구실을 한다.

구렁이가 되는 과정에서 기이한 체험은 신이한 세계의 충격적 체험이다. 예사로운 세계와 결별하고 물 속이나 상상으로 다다를 수 없는 신비로운 세계의 경이를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렁덩덩신선비>나 <칠성본풀이>에서는 기이한 세계의 체험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구렁덩덩신선비>에서는 구렁이 허물을 실수로 태우게 된 여성 주인공이 신비한 세계를 통해서 남편을 찾는 것이 기이한 세계의 체험으로 되어 있으며, <칠성본풀이>나 <월정본향본풀이>에서는 무쇠석함에 담기는 기이한 체험 자체가 신이세계의 체험으로 설정되어 있다.

무쇠석함에 담기는 이유도 <칠성본풀이>나 <월정본향본풀이>에서 각기 다르게 되어 있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잉태했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월정본향본풀이>에서는 잉태가 아니라 직접 구렁이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라서 두 본풀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아무튼 사람이 구렁이가 된다는 설정은 신이한 존재로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낯선 세계에 와서 초월적 지배자로 활약하는 것이 핵심이

12) 사람과 구렁이가 오고가는 이야기는 인디언 신화 가운데 이로쿼이즈인디언 신화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조셉 켈벨, 『신화의 힘』(고려원, 1992), 295~299면

라고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에서 구렁이로서 자신이 신성한 지위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제시되어 있다. 그에 관한 핵심은 이렇게 정리된다.

- (a) 기존 단신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다
- (b) 특정한 곳의 단골을 확보하다
- (c) 자신만의 독자적인 신화적 위업을 노정기로 달성하다
- (d) 특정한 곳의 단골을 확보하다
- (e) 도성 안에서 단골 이상의 특정 장소를 정하고 좌정하고 제향받다.

칠성은 강남에서 솟아난 존재이고 무쇠석함에 담겨져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제주도 고유의 신은 아니다. 칠성은 외래신이다. 떠돌이 신으로 불박이로 머물러 있는 본향신인 토착신과 투쟁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당신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떠돌이 신인 칠성이 경험하는 떠돌이 신 노정기는 이렇게 해서 마련된다.

칠성의 노정기에서 기존 당신과 경쟁하는 것이 안사인 구연본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의 갯가 본향당신뿐만 아니라 중산간 본향까지도 모두 해당사항이 있어서 길게 구연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심방은 <칠성본풀이>를 구송하면서 제주도 당신의 계보를 암송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존에 있는 당신이 ‘썩여지여 못내든다’라고 하는 구절이 곧 칠성신과 기존의 당신이 겪는 갈등의 실상을 잘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칠

13) 문무명, 같은 책(칠머리당굿보존회), 335~339면. 칠성노정기는 당신노정기이다. 제주도의 예전 지명과 본향당신이 누구인가 알 수 있는 긴요한 자료가 곧 이 대목이다. 관용적인 지명과 본향당신의 열거가 아니라 다른 신들과 결투하면서 칠성신이 자신의 좌정처를 정해야 하는 사정이 이처럼 제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출발지와 도달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특별한 사실이다.

성신은 제주도 함덕리 서모오름 열 무승개로 들어오고자 한다. 칠성신이 밭을 붙인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칠성신은 자신의 단골을 확보해야만 한다. 일곱 잠수와 송침주 영감이 곧 무체설잡 속의 존재를 만나면서 단골 확보의 갈등 일정 부분 해소된다.

당신과의 경쟁도 경쟁이나 급선무는 칠성신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신앙민인 단골을 확보하는 일이다. 일곱 잠수와 송침주 영감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다른 한생소 구연본에서는 부정적 행위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므로 칠성신이 단골 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할 수 있다.

일곱 잠수들은 하도 무섭고 더러와 베연
야 하영 앓젠 손드레 노난 폴드레 잘잘 올라오랑
머리레도 치러불곡 배레도 부떠가곡 흥난
닥닥 눈 벨르멍 코 벨르멍 끄 바끄멍 발로 밀리멍¹⁴⁾

단골들의 불손한 태도로 인해서 칠성신의 신성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신의 갈등이 있는 것을 물리치고 새삼스러이 자신의 좌정처를 정했는 태도 기존의 단골들이 처음에 좋아하다가 구렁이임을 알고 이렇게 거부한다. 일곱 칠성이 이에 대한 응징으로 부술을 주어서 신이 존재를 알리게 된다. 그것이 곧 신성한 힘으로 부술과 조화가 된다.

병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므로 그것이 칠성님의 조화임을 이원신 심방에게서 알게 된다. 신성한 존재의 예우는 신성한 의례를 하는 것이다. 이른 바 칠성새남 또는 전새남을 하는 것이 곧 칠성님의 신앙적 예우라고 할 수 있다 신에게 의례를 거행하면 신은 이에 관한 감응 내지 응답으로 단골들에게 일정한 보답을 하게 되는데, 칠성신은 부신이므로 단골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칠성코사가 마을 전체로 확장된다.

14) 문무병, 같은 책, 340면

마을 자체의 단골이 분열되므로 기존의 당신과 칠성신은 같등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상세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생소 구연본에서는 칠성이 다른 고장으로 좌정처를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제시된다.

마을에 토지관님 놀래국서 솟아난
동펜은 황석 서펜은 금석 토지관님이
어떻ㅎ난 나 즈순들은
정월 나도 과세 아니오고
여름은 마불림 침대구덕 채우던 즈순달이
돌 담읍센 ㅎ난 이게 어땡ㅎ 일인고
어땡해연 후망을 ㅎ여보난
야, 강남서 들어온 칠성한집이 조순들안티
되면 받암구나 아이고 자기 떠나지 안니ㅎ민
작대기 반양 칠성단도 문딱 밀화 불켄ㅎ난¹⁵⁾

마을 토지관님인 황석과 금석 토지관님이 칠성님과 경쟁관계로 놓인 사정이 예시되어 있다. 마을 본향당의 판도를 관장하는 당신이 외지에서 온 외국임신에게 밀려나가는 형국이다. 자손인 단골이 본향당신의 당제일인 신년과세제의가 거행되는 정월과 마불림제사가 시행되는 칠월에도 찾아오지 않으므로 그 사정을 알아본 결과 칠성단에 치중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래서 마을 토지관 한집이 칠성한집을 밀어내게 된다 해꼬지를 직접 하겠다는 위협이 여기에 제시된다.

함덕에 머물 수 없었던 주인공이 칠성이 새삼스러이 자신의 거주처를 정하기 위해서 도성 안으로 이동하는 노정기가 있다. 자신의 권능을 입증

15) 문무병, 같은 책 342~343 면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것과도 같다. 제주도에 처음 들어와서 당
신 때문에 좌정처를 정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함덕에서 도성 안까지
의 장엄한 위상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질서를 수립하는 신성한 행
위이다. 제주도 지명의 연기 전설처럼 칠성의 칠성당, 칠성골 흔적을 거듭
남긴다. 안사인 구연본과 한생소 구연본을 비교하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안사인 구연본: 함덕 금성동산 → 조천 만세동산 → 신춘열녀문꺼리 → 질
다진드르 → 화북별도 쌀쓴거리 → 베릿내 → ㄱ으니므루

한생소 구연본: 함덕 금성물 → 조천 만세동산 → 신춘열녀문 → 질다진드
르 → 돌승이 → 들른들 → 쌀쓴덧거리 → 동주원 → 베릿내 → ㄱ으니므루¹⁶⁾

지명연기전설이 칠성신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특히 한생소 구연본에서
쌀쓴덧거리나 베릿내, ㄱ으니므루 등의 이야기는 전설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명전설적 구성을 잘 갖추고 있다. 도성을 지향하면서 당신
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칠성신의 권능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칠성신의 노
정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자신의 신앙 집단을 구체화하고 현
시하는 과정이다.

칠성골에 가서 자신의 신앙집단인 단골을 다시금 확보한다. (b)와 (d)가
단골 확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b)에서는 칠성신을 박대했다가 심방의
문점에 의해서 우대한 단골이라면 (d)에서는 송대장의 부인이 저절로 우대
해서 복을 받는 점에 차이가 있다. (b)와 (d)는 단골의 선정 경위가 다르다
(c)의 결과로 (d)가 성립되었으므로 칠성신의 기세 확장 과정이다. (e)는 배
부른 동산에서 관원행차를 제압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다. 특히 그것
이 ‘배부른 동산’의 지명 전설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도성 안에 이르러 관

16) 문무병, 같은 책 343~345 면

원까지 제압하면서 철성신은 온전히 자기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행정의 중심지에서 온전한 신으로 대접을 받는다.

철성신은 단골의 변화에 의해서 온전한 신으로 자리잡는 고정이 제시된다. 단골의 규모는 서사 전개와 관계없이 송대장칩 부인, 함덕 서모오름 일곱 잠수와 송침주 영감, 배부른 동산의 관원 행차 등으로 개인과 집단 지체 낮은 사람과 지체 높은 사람 등으로 대립적으로 제시된다. 철성신이 개인에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특정 집안에 ‘조상으로 태운 것’이고 집단에 게 작용한다면 도성안의 관원 집단의 좌정처를 제주도 전체의 신앙 집단임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웨국임신’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차례대로 정착하는 과정이 단골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철성신이 관원들이 거쳐하는 도성안을 장악함으로써 ‘웨국임신’이 아닌 제주도의 신격으로 좌정하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생소 구연본에서는 철성신의 좌정 장소가 분명하다. 큰뜰애기는 안동현으로 좌정하고 셋뜰애기는 밧동현을 좌정하고 말췌뜰은 동창궐로 차지하고 넷췌뜰은 서창궐로 차지하고 다섯췌뜰은 남창궐로 차지하고 여섯치는 북창궐로 차지하고 일곱채는 과원을 차지한다. 장설룡 대감 딸아기인 어머니는 나무 아래 주절이를 쓰고서 신으로 좌정한다고 했다.¹⁷⁾ 안사인 구연본에서 동현의 여러 곳을 딸 애기가 나누어서 차지하고 안칠성과 밧칠성을 나누는 거처가 다르다. 전반적으로 도성안을 차지해서 공인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철성신의 온전한 예우는 의례의 확정에 있다. 안사인 구연본과 한생소 구연본에서는 각기 동일한 제일을 제시하고 있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금기 사항과 제일을 제시하고 한생소 구연본에서는 제일만 제시되어 있다. 안사인 구연본에서는 안칠성은 열두 시만국 신나숨과 철성님 마불립 나서지 말라고 했으며 밧칠성은 신과세제, 철같이 상을 받고 예를 갖추라

17) 문무병, 같은 책 349~350 면

고 되어 있다.¹⁸⁾ 한생소 구연본에서는 정월의 과세 받고 가을의 오곡 시만곡 철같이 칠성코사를 받으며 딸애기들은 칠성코사 시에도 창고를 여니 받아먹고 비뉘고 별풀이를 받아 먹으라고 했다.¹⁹⁾

칠성신은 칠성새남과 칠성코사의 주체로 칠성신의 정체를 위하면서 칠성님의 제의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칠성신은 본질적으로 재산을 늘려주는 신격인데, 간혹 도교에서 유래된 칠성부군과 혼합되어서 서로 뒤섞이는 형국을 갖추고 있다. <칠성본풀이>의 주체는 구렁이신인 칠성을 말하는 것이다. 칠성은 재신으로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바람직한 신으로 여겨진다.

3. <칠성본풀이>와 <월정본향본풀이>의 비교

<칠성본풀이>와 서사구조상 가장 흡사한 본풀이가 <월정본향본풀이>가 된다. 두 본풀이는 서사의 전반부가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형성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 관계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본풀이의 후반부는 너무나 서사전개가 판이해서 전형적인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차별성이 생기나 전반부에 있어서 공통점은 판박이로 찍은 듯이 흡사하다. 두 가지 본풀이가 비교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칠성본풀이>와 <월정본향본풀이>의 공통적 서사단락을 정리해서 서사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고귀한 신분의 여성이 집안에 혼자 남게 되다.
2. 여성이 특정한 계기로 구렁이가 되다.
3. 여성의 부친이 무췌석함에 여성을 넣어 바다에 버리다

18) 현용준, 같은 책 430~431면

19) 문무병, 같은 책, 351면

4. 무쇄석함 열어서 탈이 나다
5. 영감이 무쇄석함 열어서 탈이 나다
6. 무쇄석함의 여성을 잘 위해서 탈을 면하다.
7. 여성이 좌정처를 옮기다.(신의 노정기 제시)

본풀이에 나타난 추상화된 단락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 보자. <칠성본풀이>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 천왕공사와 지왕공사를 살려 가게 되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 남는다. 반면에 <월정본>에서는 아버지 황대감이 벼슬을 살려가서 혼자 남는다. 이 자식은 고귀하게 얻은 자식으로 두 대감이 가뜰스 정성을 들여서 얻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칠성본>에서는 장설룡대감과 송설룡이 모두 떠나고 고무살장안에 가둔 채 느진덕 정하님이 지키는 점이 나타나나, <월정본>에서는 황대감을 따라 나섰다가 목은 각단밭에서 사라지고, 어머니가 그의 정체를 찾아나서는 것에 차이가 있다.

1은 혼인 적령기를 둔 여성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혼자 남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본풀이의 설정은 본토나 제주도의 본풀이에서 흔하게 설정된 것으로 집에 있거나 집을 나서거나 하는 설정이 이어 지는데 여기서는 집 근처의 ‘목은 각단밭’까지 나서는 설정이 뒤따른다. 신분적으로 고귀하다는 것은 시대적 변형일 것이고 오히려 신성한 혈통이 본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할 만하다.

2에서는 여성이 특정한 계기로 구렁이가 되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칠성본>에서는 고무살장을 빠져나온 ‘목은 각단밭’에서 곤경에 처한다. <월정본>에서 아버지 가마를 따라나섰다가 그곳에서 행방불명이 된다. 구렁이로 되는 과정은 두 본에서 차이가 있으니 <칠성본>에서는 중의 부술이 계기가 되었다. <월정본>에서는 저절로 구렁이가 되었다고 했다. 중이 오장삼에다 아기씨를 싸서 말뚝돌 아래 묻었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 계기이다. 다른 본풀이에서는 장삼이 가임의 계기를 주는 것이나 여기서는 구렁

이가 도리 조짐과 가임의 계기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정본>에서는 급작스럽게 구렁이로 비약했으므로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신산국 배우자 이야기는 별도로 부과된다.

3은 혼자 있었던 여성이 특정한 장소에서 변신의 계기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의 구현 과정에서는 차별성이 있다. 구렁이로 만든 장본인이 중이라는 것이고 나중에 중의 자식을 낳아 놓고 보니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 정체가 구렁이라는 뜻이 된다. <월정본>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사라져서 이야기의 전후 맥락이 이상스럽게 되었다. 혼자 떨어진 여성이 ‘새각땃 목은 각단땃’에서 변신 계기를 갖거나 목은 각단땃에서 구렁이가 되는 설정은 동일한 발상이다.

3단락에서는 잉태한 이유로 또는 구렁이인 이유로 ‘무쇄석함’에 여성을 넣어서 버린다. 두 여성의 출신지가 일치하지 않으나 강남목에서 바다에 버려졌다는 설정을 인정한다면 동일한 생각이 다르게 구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성 주인공의 시련이자 영웅적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난다. 한 곳에 있는 여성이 무쇄석함에 담겨져 여러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이러한 영웅담으로 환경 설정에 맞추어서 달라지게 되면서 구현된다.

제주도 본풀이나 신화에서 여성이 무쇄석함에 담겨져서 제주도에 표착하는 이야기는 지속적 전승력을 갖는다. <삼성신화>에서 함에 담겨온 여성이나 다른 당본풀이에서 석함에다 담아서 버린다는 설정은 동일한 발상이다.²⁰⁾ 특히 여성이 제주도에 표착해 온다는 사고는 오랜 전승의 변화와 지속이라고 이해된다. 여성은 외래신으로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겨났으리라 추정된다.

무쇄석함을 누가 여는가 핵심적 과제이다. 무쇄석함을 여는 주체가

20) 제주도 삼성신화에서 이러한 설정을 만날 수 있다. “一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 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徒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人及諸駒犢五穀種”

영감으로 되어 있다. <칠성본>에서는 일곱잠수와 송청주 영감이며 <월정본>에서는 김첨지 영감이라고 되어 있다. 영감은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영감은 무당인 심방이 아니다. 신성한 존재를 신성한 존재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감은 경험 많은 노인 또는 장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설화에 흔하게 나타나는 중재자 또는 장로(長老)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이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이들 본풀이에서는 희석되었다. 단골이나 상단골의 주체 정도로 바뀌어서 무쇄석함을 열고서 신성한 존재를 불손한 태도로 대한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송첨주 영감이나 김첨지 영감이 자신이나 직계 가족에게 병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변모의 양상이다.

구렁이가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것을 면하는 방법은 신성한 존재로 위하는 방법이다. 신성한 존재로 위하기 위해서 제의를 배설한다. 신은 신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그 신과 인간의 계약이며 그것의 구체적 실현 양상이 곧 제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신과 단골의 관계가 맺어져 단골은 신에게 제의를 바치고 신은 단골에게 응분의 대가를 제시해야 한다.

신과 인간의 항구적 제의관계가 필요하므로 임시적 단골에 만족하지 않고 신이 좌정처를 옮기게 된다. <칠성본>에서는 항구적 제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 <월정본>에서는 구렁이가 여성으로 화해서 제주 남방국의 신산국이라는 천정 배필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전반부가 마무리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본풀이에서 신의 노정기가 동일하게 제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칠성본>에서는 함덕에서 도성 안으로의 칠성노정기가 있는 것에 견주어서 <월정본>에서는 도성안 한라산과 관덕정에서 함덕을 지나서 월정 비석거리까지의 구렁이 아기씨의 노정기가 제시된다. 두 노정기의 견주기를 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쉽사리 확인된다.

<칠성본>: 함덕 금성동산 → 조천만세동산 → 신촌열녀문거리 → 진드르
→ 화북별도 쌀솥거리 → 배릿내 → ㄹ으니ㄹ루

<월정본>: 한라산 → 관덕정 마당 → ㄹ으니ㄹ루 → 신촌 열녀문거리 →
조천 군선돌 → 함덕 사례물 → 뒷개 팽나무 정자 → 월정비석거리²¹⁾

<칠성본>에서는 기존의 당신과 같등하고 있으므로 반목과 분열을 회복하는 것은 관원에게 가서 자신의 권능을 입증하는 것임으로 함덕에서 도성안으로 이동이 필요했다면, <월정본>에서는 본향당신의 좌정처를 정해야 하므로 자신의 좌정처를 향해서 제주도성에서 본향당신의 배우자를 찾아서 도달점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신의 노정기 방향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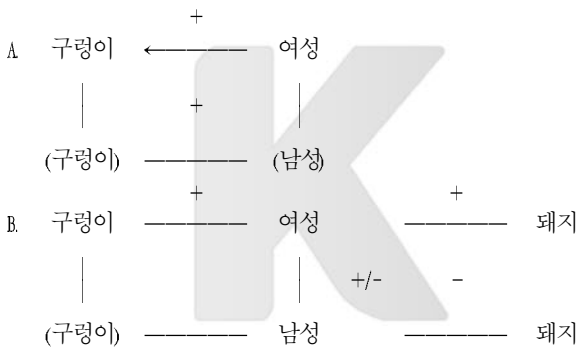
<칠성본>과 <월정본>은 서사적 소재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합된다는 사실이 이로써 증명되었다. 둘은 같은 근원에서 출발해서 갈라졌다고 할 수 있다. 둘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가 생겼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본풀이적 속성의 근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심지어 조상신본풀이 등이 같은 본풀이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일치점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구조적 일치점이 유형론을 넘어서서 화소적 공통점까지 갖추고 있으므로 본풀이 사이의 일치점을 추단하기에는 너무나 예외적이다.

오히려 <칠성본>과 <월정본>은 상호 깊은 관련성 속에서 생성되었을

21) 현용준, 같은 책 649~655 면 진성기의 책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김병생 구연에 의해서 보다 풍부하게 전승된다. 김병생 구연본에서는 성안읍중 관덕정 안동산 밧동산, 배부른 동산, ㄹ으니ㄹ루, 동지워 쌀솥거리, 삼양 진드르, 신촌 열녀문, 조천 풍선동산, 함덕 비석거리, 뒷개 점지 폭낭, 굴막은 개우머리, 짐녕성새기, 월정 락짓 등으로 보다 풍부하게 되어 있다. 이중춘 구연본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신산국이라고 되어 있음에 견주어서 석선부시도령 태호뜨님애기라고 해서 차이가 있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두 본풀이에서는 근본적 일치점 이외에도 후반부에서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발생한다. 신과 제의의 음식을 마련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칠성본>에서는 여성이 구렁이가 되므로 구렁이와 우호적 관계에 있다. <칠성본>에서는 중은 구렁이이므로 남성과 구렁이 역시 우호적이다. 단면적이지만 적대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월정본>에서는 여성이 구렁이가 되므로 우호적이며 다시 여성이 된다. 여성과 남성은 천장배필이 알고 되어 있으나 여성의 문화적 속성과 남서의 자연적 속성이 충돌하면서도 조화한다. 구렁이와 돼지는 서로 상극인데 황정승 따님애기에서 중재된다. 구렁이와 여성, 여성과 돼지고기는 서로 갈등하지 않고 직접 전환하며 연결된다. 자연에서 문화를 호환이 가능하나 남성은 사농바치로 날 것만 먹는다. 그래서 남성은 돈경내가 나는 익힌 것에 대해서 배척한다. <칠성본>에서는 남성이 구렁이와 호환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월정본>에서는 구렁이의 흔적을 지우고 사농바치로 되어 있어서 돈경내와 차별성을 갖는다. 여성이 구렁이를 청산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인정함에 비해서 태오또 또는 신산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 +: 긍정적, +/-: 잠재적, -: 부정적

A와 B는 남성과 여성의 식성 갈등과 조화를 나타내는 본풀이 이해의 유력한 가설이다. A는 <칠성본>이고 구렁이와 신 사이의 갈등이 그다지 노정되지 않는 조화를 보여준다. B는 <월정본>의 갈등 관계이고 식성 갈등에 의한 신과 음식 사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분열을 드러낸다. 돼지고기를 먹는 쪽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쪽으로 갈라지면서 서당할망과 태오또 또는 신사국 사이의 갈등이 예각화된다.

여성은 포용력이 있고 문화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성을 모험적으로 주도하지만, 남성은 자신의 흔적에 얽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식성 갈등의 자연성으로 머물고 있다. 여성이 주도적 구실을 하고 남성은 자연적 상태로 회귀하거나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갈등을 야기한다.

A는 일반신본풀이의 결과이므로 식성 갈등이나 의례적 속성에 얽매이지 않는 결과이다. B는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결과이므로 복잡한 구조를 탄생시킨다. B는 특히 돼지고기를 먹는 본향당에 일정부분 적용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대표적으로 <퀘네키당>, <월정본향당>, <세화본향당> 등의 사례는 이러한 특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월정본>과 <칠성본>은 전반부가 일치하나 후반부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갈라진다고 했다. <월정본>의 후반부에서 여성주인공이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 일곱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칠성본>의 장설룡 대감애기씨의 잉태 과정이 그대로 재현된다. 중이 오장삼애 아기씨를 싸서 나중에 잉태시키는 것을 해체해서 <월정본>에서는 황정승 따님애기가 다시 구렁이에서 사람이 되어서 월정 비석 거리에서 신산국을 만나거나 또는 월정 광짓에서 태호또를 만나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칠성본>과 <월정본>은 전반부의 구조적 부합뿐만 아니라, <칠성본>의 애기씨와 중이 만나는 대목을 확장하여 <월정본>의 후반부에 신산국과 애기씨의 결합으로 바꾸면 결국 동일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칠성본>의 구조적 변형이 <월정본>이 되고 <월정본>을 논리적으로 조작해서 순서를 바꾸면 결국 <칠성본>이 된다. 같은 이야기가 어느 쪽에서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남녀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되어 있는 셈이다.

중 : 장설룡애기씨 : 황정승 따님애기씨 : 신산국 (또는 태오토)

애기씨의 기능은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차이가 있으며 기능은 동일하다. 중은 한시적 기능만을 했으나 신산국으로 바뀌면서 주도적 구실을 하고 신산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서당할망을 축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이 하는 기능이 신산국에 이르러서 정반대의 기능을 하면서 기능상 역전이 이루어진다. 두 애기씨의 기능은 논리적으로 동일하며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고 양육처를 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칠성본>과 <월정본>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이다. 두 가지 본풀이의 근본 갈래가 달라진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동일한 신화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4. <칠성본풀이> 연구의 의의와 변이유형의 칠성신앙적 의의

제주도에서는 칠성신은 여러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신격이라고 이해된다. 칠성부군, 안칠성, 밧칠성, 칠성새담, 칠성코사 등의 용례에서 확인하듯이 제주도에서 신의 성격이 모호하다. 칠성부군 또는 칠성원군은 이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외래 신격인 칠성신과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좌정처를 지니고 있는 안칠성과 밧칠성의 칠성신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칠성은 업가리나 터주신의 제주도적 변형이라고 이해된다. 지금까지 다룬 <칠성본풀이>는 업신의 내력에 관련된 것이었다.

외지에서 온 신이 제주도 고유의 본향당신 텃세에 밀려서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면서 도성안을 정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숭앙하는 신이 신격화하는 생생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주도 심방들이 제주도 전체의 당신 계보를 깃가와 중산간 순서대로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칠성본풀이>에 있었다. <칠성본풀이>가 중요하지 않은 본풀이가 아니다. 오히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나 본풀이 사이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소중한 준거가 되는 자료이다.

제주도에는 각도비념이라고 하는 제차가 있다. 집안의 각처를 관장하고 있는 가신들에 관한 제의이다. 본토의 가신신앙과 일치하는데 칠성은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나뉘며 안칠성은 연양상고팡의 쌍독을 지키는 신이고, 밧칠성은 집 뒤에 있는 칠성놀굽의 신이다. 제주도의 칠성은 성격상 본토의 제석신이나 업 또는 터주거리와 상통하는 일면이 있다. 제주도에서 가신의 본풀이가 살아있는 사례로 <칠성본풀이>와 <문전본풀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례가 된다.²²⁾ 이 가운데서 <문전본풀이>는 문전신만 아니라 칠성, 조왕, 오방터주신, 주목이나 정살지신, 놀굽지신 등에게 일제히 제의하는 것이나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에게만 제의한다는 점에서도 독자적이라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와 <문전본풀이>에서 칠성신이 동시에 등장하는 점도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문전본풀이>에서 칠성신이 동시에 등장하는 점도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문전본풀이>에서 칠성이 되는 아들 칠형제도 칠성이기는 하지만, 신의 성격이 다르다 또한 ‘불도맞이’에서 섬기는 칠원성군과 <문전본풀이>의 칠성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핵심은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지칭되는 <칠성본풀이>의 칠성은 다른 신이라는 사실이다.

<칠성본풀이>는 신의 소종래는 외지에서 왔으나 신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도 본풀이의 전통적 서사 문법과 깊이 관련된 독자적 요소로 짜여져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칠성본풀이>에서 마련된 독자적 요소는 장차 본풀이 연구에 있어서 소중한 지침이 되리라고 예측된다.

22) <성주풀이>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차후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당신본풀이와 관련 하에서 <칠성본풀이>는 독자적인 신화적 사고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이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면 <칠성본풀이>는 제주도 고유의 신화적 사고를 이해하는 근거가 되리라 예상된다.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는 이러한 본풀이의 전통 위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칠성본풀이>와 <월정본향본풀이>만 검토하였는데 장차 <나주기민창조상>과 연계하면서 전반적인 비교를 확장해서 새로운 결론을 얻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데 이 논의는 예비적 고찰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이 연구는 제주도 본풀이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에서만 존재하는데 <칠성본풀이>의 제주도적 유형이 한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성신앙은 제주도에서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바 있다. <칠성본풀이> 역시 이러한 칠성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제주도에 두 가지 변이 유형이 존재한다. 제주도에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역 유형이지만 제주도에 전승되는 지역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칠성신앙에 따라서 어느 칠성을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칠성과 땅의 칠성을 동시에 언급하는가 땅에 있는 칠성만 언급하는가에 따라서 유형이 갈라진다.²³⁾

제주도에 전승되는 칠성신앙은 세 가지가 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

23) 지금까지 채록된 <칠성본풀이>는 모두 현재까지 6편 내외가 채록되었으며 현지 채록본까지 말하자면 양창보 심방 구연본과 이중춘 구연본까지 합치면 모두 8편이 된다. 박봉춘 본(1937), 이무생 본(1968), 고창학 본(1968), 고대중 본(1973), 안사인 본(1980), 한생소 본(1996), 양창보 본(2003), 이중춘 본(2000)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채록본은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서 박봉춘 본, 이무생 본, 고창학 본, 양창보 본 등이 한 계통으로 되고 안사인 본, 한생소 본, 이중춘 본 등이 다른 한 계통으로 된다. 이러한 두 유형은 여러모로 비교 검토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본격적 작업을 미루고 유형 상호간의 관계만 분석하기로 한다.

다. 첫째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사람의 생명을 점지하는 칠성신앙의 대상으로 칠성이 있다. 칠성은 하늘의 북두칠성이 신격화 된 것으로 하늘에 있으면서도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보살피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칠성이라 할 수 있다. 칠성이 생명을 관장하고 인간의 수명에 깊은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칠성신앙이나 도교의 칠성원군, 불교의 칠성각(七星閣)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칠성신앙의 정체를 모두 밝혀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이나 칠성, 칠성원군, 칠성각 등에서 발견되는 것은 칠성신앙의 복합적 면모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둘째는 칠성신앙의 제주도적 특색으로 인가에게 재와 부를 가져다 주는 구렁이 또는 뱀신앙으로서의 칠성신앙이 존재한다. 제주도에서 일곱 딸애기를 중심으로 칠성각 또는 칠성제의가 성립하고 안칠성과 맞칠성으로 모시는 칠성신앙이 별도로 존재한다. 육지에서 신앙하는 업이나 터주 등의 제주도 신앙의 변이 유형으로 판단된다. 본토의 업이나 터주는 대체로 구렁이업, 족제비업, 그리고 두꺼비업으로 숭앙되게 마련이다.²⁴⁾ 제주도의 칠성은 안칠성과 맞칠성으로 업의 신앙과 관련된다. 사산(蛇神) 칠성이 그것이다.

셋째는 구체적 신체를 갖추고 ‘불도맞이’에서 모시는 칠원성군이 그것이다. ‘불도맞이’에서 핵심은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불왕의 탄생에 있다. 송낙 일곱 개를 제상에다 차려놓아서 그것을 송낙지 세 개인 생불왕과 함께 섬기는 것인데 성격이 유사해서 함께 모시는 것인지 자신하기 어

24) 서울만신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업의 정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인업, 족제비업, 돼지업, 무량업, 긴대업 등이 그것이다. 업을 모시게 되는 경우는 꿈에 업이 보이거나 집안의 대물림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업가리를 터주가리와 같이 뒷걸에 모시거나 광이나 부엌에 항아리를 장만해서 콩이나 쌀, 벼 등을 넣어서 모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인업은 사람의 형체로 보이고, 족제비업은 날아들고 돼지업은 기어들고, 무량업은 흘러들고 긴대업은 서려든다고 한다. 제주도의 칠성은 본토의 긴대업과 상통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3년 10월 6일 7:00시에 이상순 만신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럽다. 제주도의 칠성신앙이 삼신신앙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명백한 증거가 제의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불도맞이’의 칠성신앙이 혼합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삼신신앙이 제주도에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와 같은 변형이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칠성본풀이>와 칠성신앙은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칠성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본풀이의 형태가 각기 존재하는 것은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칠성본풀이>의 제주도 유형은 두 가지이다. 그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에서 살핀 <칠성본풀이> 유형이 있다. <칠성본풀이>의 핵심은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한 장설룡과 송설룡이 동개남 은증절에 원불수룩을 들어서 낳은 자식이 잉태하게 버림받아 칠성신으로 좌정하는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신칠성>의 이야기라고 하겠다.

이와는 다르게 설정된 본풀이가 있으니 세 가지 이상의 각편으로 된 <칠성본풀이>이다. 그 <칠성본풀이>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강남천자국에 있는 인물이 칠성제의 치성을 들인다.
- (나) 칠성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치성에 참가한다.
- (다) 특정 성군이 제자를 공부시키다가 이 제의에 늦게 참여하다.
- (라) 수제자와 성군이 공모해서 치성들인 양주의 눈을 멀게 하다.
- (마) 다시 제의를 드려서 눈을 뜨게 하고 자식을 점지하다.²⁵⁾

이러한 내용은 기가치성과 관련된 것이나 두 가지 핵심적 사건이 결부되어 있다. 천상에 있는 칠성신이 지상에 하강해서 칠성제를 칠성각에서 받는데 칠성신이 늦게 참여해서 칠성단 또는 칠성각에 올린 일정한 곳 음

25) 이러한 사실은 『조선무속의 연구(상)』에 있는 박봉춘 구연본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른 구연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모두 등장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른가 장차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식인 ‘외성(중메떡)’ 또는 ‘손내성’을 늦게 참여한 칠성신이 수제자와 짜고 훔쳤고 칠성신은 그 죄를 몰아서 주인 내외를 ‘정봉사’ 또는 ‘당달봉사’를 만든다.²⁶⁾ 그렇게 해서 칠성 제의를 다시 받고 <칠성본풀이>의 핵심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칠성본풀이>의 두 가지 유형은 제주도의 칠성신앙을 이해하는 데 서로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 제주도 에 전승되는 칠성신앙의 두 가지 형태가 <칠성본풀이>와 관련되고 유형화되었음이 사실로 밝혀진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과 관련이 있는 <칠성본풀이>가 있다. 하늘에 있는 칠성이 칠성단을 모으고 제의를 올리는 인간의 소원에 감응해서 참여한다는 설정이 이러한 칠성신앙의 구체적 성격이 드러난다. 하늘 옥황에 있던 칠성 가운데 하나인 ‘동성군(박봉춘 본)’ 또는 ‘목성군이 무생 본)’ 또는 ‘강성군(고창학 본)’이 칠성제에 늦게 참여해서 인간을 트집잡아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칠성신과 수제자의 사술(trick)이 개입한다. 칠성단에 일곱 개의 ‘외성’ 또는 ‘손내성’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두 개를 훔쳐서 정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그것을 가지고 눈에 던져서 양주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금 자신의 눈을 낫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칠성제를 지내게 된다. 여기에 다소 비약이 있는데 봉사가 된 양주가 눈을 뜨게 되는 사실과 장차 사신이 될 딸아기를 낳게 한다는 사실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눈이 먼 사람이 칠성신에게 제사하여 낫는 일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나 칠성이 점지한 생명이 사신의 어머니로 된다는 사실은 도무지 다소간 비약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하늘에 있던 칠성신이 지상으로 유배해 왔다는 각편이 있다. <이무생 본>에 그러한 사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정은 천상의 별이 지상

26) 이러한 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무생 본>과 <고창학 본>이다. 진성기 같은 책, 145~157면

에 하강했다는 적강형 화소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만의 체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제자와 천상에서 유배된 칠성님이 공모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곳의 떡을 훔쳐서 정성이 부족하다는 탓을 해서 칠성체를 한 내외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금 칠성체를 받아먹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생명을 접지하고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칠성본풀이>는 합쳐 놓으면 온전한 사건이 구성되고 칠성신앙의 두 가지 유형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이 드러난다. 천상의 칠성신앙과 지상의 칠성신앙이 구체적으로 결합되어서 천상의 칠성에 힘입어서 지상에 태어난 여성이 사신 칠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건의 요체가 된다. 칠성이 외면적 유사성 때문에 결합된 것인지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복합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천상의 칠성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칠성본풀이>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해상으로 해상에서 지상으로 부상하는 전과정을 모두 담고 있으나 지상의 칠성신앙을 드러내는 <칠성본풀이>는 지상에서 해상으로 해상에서 지상으로 옮겨가는 수평적 세계관에 입각한 제주도 본풀이의 전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두 가지는 서사 전개상 흡사하게 맞추어져 있으나 사실은 칠성신앙의 전반적 전개에 맞추어진 느낌이 든다.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된다고 했다. <문전본풀이>의 결말 부분과 <칠성본풀이>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천상의 칠성신앙을 보여주는 서두 부분이 일치하는 일이 벌어진다. <칠성본풀이>와 <문전본풀이>가 어찌다 보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문전본풀이>는 본토에서는 <칠성본풀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전본풀이>와 <칠성본풀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까워졌으리라고 이해된다. 장차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

5. 마무리

앞에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기하고 해명한 사실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칠성본풀이>는 특이하게도 일반신본풀이지만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 이처럼 제주도의 토착신과 외지에서 들어온 신의 상호갈등을 보여주는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음이 확인된다. 외지에서 들어온 신이 제주도의 토착 단골을 확보하고 마침내 숭앙되는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칠성본풀이>이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를 토착신과 외래신의 갈등관계로 이해하는 단서를 통해서 새삼스러이 착안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본토에 널리 퍼져 있는 업신앙이 제주도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여성을 주인공삼아 여성이 구령이가 되어서 제주도로 가는 과정은 여성영웅서사시로서도 긴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내용이 <월정분향본풀이>의 전반부와 서사 주인공, 서사적인 내용 등에 있어서 엄밀하게 일치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 본풀이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간섭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의 원론적인 토착 갈래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들의 원천을 공유하고 색다르게 적용하려는 운동과정을 생동감 있게 구현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인물과 사건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독자적으로 전승하는 것의 관습을 창출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칠성본풀이>는 남다른 전례를 가진 본풀이이다.

제주도의 <칠성본풀이>는 본토의 업신앙이 제주도의 공식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잡는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는 칠성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도교의 칠성신앙, 물을 관장하는 칠성맛이, 칠

성풀이 등과 용례가 외면적으로 중요하게 일치하지만 부군칠성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업신앙이 마을과 제주도 차원의 신앙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더 구체화될 수 있는지 앞으로 실제 칠성부군제를 빌미삼아 검토해야 할 숙제이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세 가지 본풀이의 상호간섭을 입체적인 각도에서 검토하는 일이다. 연구의 실마리는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무방하다. 세 가지 본풀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단서를 가지고 이를 다른 본풀이에 적용하면 쉽사리 공통점을 얻기 마련이다. 연구는 항상 대상을 재정의하고 그러한 정의를 통해서 대상의 실체를 온전하게 인식하는 운동을 요구한다. 제주도의 본풀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대상 인식이고 이를 앞으로 일반화해서 다룰 수 있도록 과제를 확인한 셈이다.

참고 문헌

- 김명자,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 『한국민속학보』 7, 한국민속학회, 1996.
- 김현선, 「제주도<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253~331면
-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열두 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아끼바,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상)』, 옥호서점 1937.
-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신화의 힘』, 고려원 1992, 295~299면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419~431면

■ Abstract

A study of the mythological and Bonpuri meaning of the

<Chilseongbonpuri >

Kim, Heon-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ilseongbonpuri > which one of the Jeju-do twelve Bonpuri. This Bonpuri have important contents. But It did not study usual. This bonpuri shows that the course how an acquired God settle jeju-do from an external territory and worshiped as a God by the inhabitants.

<Chilseongbonpuri > tells that the story how they take a seat as a God. The God of Chilseong is widely known as Bukun chilseong in Jeju-do. An anchilseong is attended on Gopang, Batchilseong is attended on Jujeori. These God is recognized as God who bring the riches.

An anchilseong and Batchilseong is originated in an external territory. These God compete with Bonhyangdang who is native God in Jeju-do. Finally They prove their existence nearby Hamdeok.

The structure of Bonpuri which clarify Chilseong's past life is accord with Jeju-do Bonpuri These point similar with <Woljeongbonpuri >.

1. A woman of noble birth leave alone in the house.
2. A woman become a big snake by accident.
3. Her father put her in a box made of iron and throw away the sea.
4. A problem arises to the box made of iron.
5. Because an old person open the box, A problem arises.
6. Because of good treatment, An old person saved from disaster.
7. She moved sitting place.

It is common to a woman of noble birth who is changed is discarded and worshiped in new place in heroine epic. This bonpuri shows the course worship as a female god and Chilseongsin.

<Woljeongbonpuri> is to obtain as a result of village faith. There are <Chilseongbonpuri> in Jeju-do and land. so, we can compare one with the other.

The core of <Chilseongbonpuri> is combine the faith of Chilseong in the heavens with the faith of Chilseong in the ground. As a result, She become a Sasin-Chilseong.

Key words : Chilseongbonpuri, Woljeongbonpuri, Munjeonbonpuri, Chilseong faith, Settling God, An acquired God

K C I